

家禽農場의 疾病管理

(퓨리나 코리아 농장 수의사)
崔 載 俊

본인은 약 10년간 퓨리나 코리아 농장에서 주로 종계육성 업무와 가금질병을 담당하여 왔다. 그동안 생각해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가금의 질병예방 문제를 기술해 봄으로써 사양가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면 기쁘므로 생각 하겠다.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금에 있어서도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질병문제는 합리적인 관리로 가금에게 좋은 환경조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질병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피해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로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 닭이 폐사함으로써 피해가 오지

만 닭이 질병상태에 있으므로 증체의 둔화 산란의 감소, 도태계의 축출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손실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볼때 더 큰 손실을 준다. 질병방역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병원체가 농장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미 이들 병원체에 오염된 곳에서는 발병하지 못하도록 억제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병행해서 닭에게 안락한 환경조건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병아리를 육추시 Chilling (한기) 상태에서 육성할때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발생케 하는 요건이 된다. 환기, 습도, 신선한 물의 공급, 건조한 깔짚, 적당한 온도, 등 세세한 부분까지 합리적 관리를 함으로써 강건한 닭을 키우게 되며 닭 자체가 질병을 막아 내는 힘을 길러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문제 이전의 관리 문제에 대한 결함을 세밀히 체크하여 시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진국의 양계업을 돌아보고 온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그들이 이론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지만 실제 관리면에서는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양계도 하나의 기업이며, 사양가는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들 투자자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예방에 필요한 상당한 돈을 지출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출을 보험으로 생각해야 하며, 그로부터 오는 이익은 바로 나타나거나, 계산 될 수 없지만 투자 자본의 위험 부담에 비교하면 그 경비는 경미한 것이다. 계사는 타 농장의 계사로 부터 최소 250m 떨어져 있어야 하며 농장 주변에 반드시 울타리를 하고 출입문에 시전장치를 하는 것, 출입문에 차량과 사람을 위한 소독판 설

치, 경의실, 샤워장 설치운동, 방문객을 위한 피복 및 장화의 준비, 소독판 설치, Disposal pit설치, 환기시설의 근대화등 방역을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가금을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완벽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계군의 All in, All out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계사 별로 All in, All out도 중요하지만 단위농장 전체로 이 방법을 적용하면 더 이상적이다. 이 방법을 적용할 때 ① 밀사를 방지할 수 있고 ② 계사를 상당기간 쉬게 할 수 있으며 ③ 완전한 준비와 소독을 할 수 있다.

또한 깔짚 같은것도 가을에 도정시 차년에 쓸 왕겨를 확보, 잘 보관함으로써 좋은 깔짚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습기가 찬 깔짚이나 떡진 깔짚을 사용하는 피해는 콕시듐증, 곰팡이성 질병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필요한 백신이나 약품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따른 정확한 예방 접종과 질병발생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조기 치료를 가능케 한다. 가끔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어떤 점에 유의 해야 하는가

① 먼저 계사준비를 생각해 보겠다.

㉠ 계사가 비워지면 급수기, 급이기, 육추기, 난로, 약탱크등 기구를 전부 밖으로 내놓고 먼지와 오물을 제거한 다음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한 다음 건조시킨다. 소독된 기구는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 계사내에 바닥의 묵은 깔짚을 걷어낸다. 걷어낸 깔짚은 계사주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근처 채소농장에 매각한다.

㉢ 계사의 내부를 천정, 벽, 바닥의 순서로 오물을 완전히 쓸어 낸 다음 수압이 강한 물로 닦아낸다. 이때 바닥과 벽을 세척시 3% 가성소다 액을 사용한다.

그리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단졸 크레졸(200배액)등으로 1차소독한다. 그리고 최소 2주이상 계사를 쉬게 해야 한다. 계사가 쉬는 동안에 파손된 곳이나부서진 기구를 수리 보수하며 특히 쥐의 통조를 차단하고 방충망이나 철망을 쳐서 조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야조는 기생충의 근원이 되며 살모넬라를 전염시킨다.

㉣ 깔짚을 넣기전 단졸, 크레졸로 2차 소독실시후 건조시킨 다음 깔짚을 넣는다.

㉤ 육추기, 난로, 착가드, 급수기 조립, 급이기조립 등 기구를 설치하고 Tocil

chloramidun-natrium 계통의 소독약으로 3차 소독한다. 하라민으로 알려진 이 약품은 현재 중앙약품에서 다살균이 나오고 있다.

㉥ 병아리가 도착하기 최소 4일전에 과망 간산가리와 포루마린을 평당 60g : 120 cc비율(계사높이 3m의 경우)로 하여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이때 온도를 30℃정도 올리고 습도를 70%이상 해준다.

㉦ 계사별로 입구에 소독판을 설치하고 엄격한 출입제한을 하여야 한다. 철저한 출입제한 만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

소독수는 가능한한 매일 교환해 주고 출입시 철저히 신발 소독을 하도록 한다.

㉧ 계사주위의 닭운반상자, 지대, 쓰레기 더미 나무조각등을 제거하고 소독한다. 계사 주위의 건풀을 깎아주고 마라치온을 뿌린다.

② 신용있는 부화장에서, 모계가 질병이 없었던 병아리를 구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계로 부터 난계대전염하는 Mycoplasma pullorum. A. E. Fowl - Typhoid 등의 질병이 부화장을 통해전파된다.

③ 제균 상황과 건강 상태를 기록 유지할 것이며 기록 유지할 사항에는 ① 산란수 ③ 사료섭취량 ③ 폐사 도태수 ④ 음수량 ⑤ 주별체중 ⑥ 투약내역 ⑦ 병력 등을 기록한다. 일반관리에서 결함을 발견치 못하는 상태에서 사료섭취량, 음수량 산란수가 떨어지면 일단 질병상태로 간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둍시증 발생 시 사료 섭취량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 ④ 정확한 부리 자르기를 해주어야 한다. 왕왕 너무 많이 자르거나 적게 자르므로 많은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다.
- ⑤ 그지역에 맞는 구충 및 백신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정확히 실천한다. 또한 백신 접종을 전후하여 비타민과 항생제를 투여하여 스트레스를 막아주어야 한다. 참고로 퓨리나 코리아 농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 하고자 한다.

마레백신 1 일령
 N/D B-1 1 차 10—14일령
 N/D B-1 2 차 30—35일령
 사독백신 90일령
 A. E백신 120일령
 제두 1 차 15일령 (가을추경우—1 침)
 2 차 70—75일령 (2 침)
 구충 1 차 60—65일령
 구충 2 차 100일령
 구충 3 차 이동 1 주전.
 *B-1 투여시 투여후 2~3 일에 C. R. D 예방 용 항생제를 투여하면 안전하다.

또한 외부기생충 구제를 위해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하여 흡혈 기생충으로 부터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 ⑥ 죽은 닭은 즉시 태우거나 묻으며, 필요한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병리 해부 검사를 하도록 하여 진단을 받아 조기 치료를 하여야 하고 부검만으로 진단이 안

될때는 가축위생연구소로 보내어 진단을 받도록 한다. 바이러스 질병(뉴캐슬제두 등)에도 항생제가 치료제는 되지 않지만 2 차 세균 감염을 막아야 함으로 우선 투여하면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외부기생충 구제를 위해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하여 흡혈 기생충으로 부터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 ⑥ 죽은 닭은 즉시 태우거나 묻으며, 필요한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병리 해부 검사 검사를 하도록 하여 진단을 받아 조기 치료를 하여야 하고 부검만으로 진단이 안 될때는 국립가축위생연구소로 보내어 진단을 받도록 한다. 바이러스 질병(뉴캐슬제두, 등)에도 항생제가 치료제는 되지 않지만 2 차 세균 감염을 막아야 함으로 우선 투여하면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⑦ 구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쥐는 사료 지대를 뚫어놓고, 또한 Disposal pit 가 틈이 있을때 드나 들므로서 병균을 오염시킬수 있으며, 병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경계해야 한다.

- ⑧ 농장 방문객들을 경계해야 한다. 즉 타 양계업, 사료, 약품, 병아리 판매원 서적상, 월부장사 등.

- ⑨ 육추사 및 계사내에서 신는 신을 따로 분리하도록 할 것

- ⑩ 다른 가금류 예를 들면 오리, 칠면조, 거위등을 농장내에서 사육해서는 안되며 계사 관리자는 자기 집에서 닭을 길러서는 안된다. 살모넬라, 흑두병 같은 병은 他 가금류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

- ⑪ 타농장에서 장비나 기구, 기계류를 농장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빌려 오지 말 것

- ⑫농장내에서 돼지 사육도 세균성 질병 특히 살모넬라 위험성 때문에 금해야 한다.
- ⑬중계는 추백리 검정을 반드시 실시하고 양성판정때는 과감히 도태한다.
- ⑭계사 기구는 목재 대신에 금속류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 거칠게 켜진 목재는 세균의 온상이 되며, 목재소독시는 수증기를 이용하고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석탄산을 칠해둔다.
- ⑮바닥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급수기 주위의 젖은 부분을 자주 파내고 환기를 잘 시킨다.
- ⑯음수소독제를 병이 발생하기 쉬운 하계절이나, 전염병 발생 위험시 매일 1시각씩 아침에 음수에 투여하면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⑰일정한 주기적으로 야간에 소리를 들어 보도록 한다. C.R.D의 경우 야간에만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조지발견시 적은 비용으로 치료효과를 올릴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여러 문제점을 열거 검토하였다. 닭을 건강하게 키우고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이어야 하고 많은 이론보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많은 양계장이 출입구에 소독관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사내에 들어가 보면 과연 이러한 환경에서도 질병 없이 좋은성적을 올릴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합리적 관리와 철저한 예방에서 찾아야 하며 그렇게 할때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⑱사료는 가급적이면 벌크로 운반되어야 하고 부득이 지대를 사용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하절기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너무 많은 사료의 저장은 피해야 하며 변패한 사료를 급여해서는 안된다.

사료가 계군에 세균성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 육분, 골분, 우모분 등으로 부터 살모넬라가 전염될 수 있다. 펠렛사료, 크럼블사료를 사용시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올들어 소비자물가 15.9%상승

- 식료품비는 20%나올라 -

지난11월중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75=100)는1백52.7로 전월에 비해 0.5%, 올들어서는 15.9%가 상승했다.

15日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11월중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김장철을 맞아생명태, 굴등 김장용재료가 오르고 출하부진 으로 닭고기·고추등이 올랐으나 계절적으로 출하가늘어난 무우·배추·파등 채소류가 크게 내려 식료품비는 0.1%가 하락했다.

한편 식료품이외에서는 원재료가인상으로 내의류등이 오른 것을 비롯해 목욕료

등 서비스요금이 오르고 전월에인상된 운동화·세탁비누등의 영향으로 1.1%가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거비에서도 캐비넬(10.8%)등 가구내구재가올라 0.9%가 상승했으며 광열비는 전월수준에서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들어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가 20%, 식료품이외에서 12.3%가 각각 올랐다.